

# 부부의 자원과 부부권력과의 관계 연구

## Relations between Resources and Conjugal Power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아동학과

연구조교 김 홍 은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Life, Yonsei Univ.

Research Assistant: Hong Eun Kim

###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결과 및 논의

V. 결 론

참고 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resources and conjugal power in Korea, with the specific purpose of testing Rodman's theory that norms and resources operate in a cultural contex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68 couples with children who lived in nuclear families and resided in Seoul.

Relative conjugal power, norms about role and socioeconomic resources of spouses were measured with questionnaires based on Burr's research.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ne spouse of each coupl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earson's Correlation and one-way ANOVA.

Results of this study generally supported Rodman's theory but were not consistent with Rodman's speculation that resources are more strongly related to power when norms are more equalitarian than patriarchal.

## I. 서 론

###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집단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권력(power)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 Wolfe<sup>1)</sup>에 따르면 권력이란 두 명 이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한 집단의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구조적 측면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다.

가족도 하나의 집단이나 다른 집단과의 다른 인간관계로 형성되고, 가족간의 역할분화 및 관계는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가족 관계에서 권력관계는 가족 내부의 실제적 변화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될 뿐 아니라 가족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중에서도 부부 사이의 권력 관계는 그 중심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부권력(conjugal power)은 각 배우자가 가지는 교육·수입·직업 등의 자원의 기능으로 설명되어 왔고, 주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부부 각자가 가진 자원의 절대적 양이 부부권력에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음이 여러 연구에서 시

사된 바 있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절대적인 자원만의 기능으로 복잡하게 상호 작용하는 부부권력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남자 중심의 관념이 우세한 우리 나라에서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기존 외국의 여러 연구에서 자원이 갖는 영향력에 일관성이 없었고, 나라마다 자원의 기능이 다르게 제시되는 점은 우리 나라의 문화적 맥락에서 자원의 의미를 파악하고 우리 사회 규범상의 영향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도시나 농촌의 가족권력 구조 양상을 기술한 연구<sup>2,3)</sup>, 근대화의 일면으로 부부간 권위관계에 유형적 접근을 한 연구<sup>4)</sup>, 자녀가 지각한 부모권력<sup>5)</sup>의 연구가 있으나 부부간의 권력관계를 상대적 자원의 측면에서 비교하려는 시도나 자원과 규범이 어느 정도 권력에 작용하는지의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부부권력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 Rodman<sup>6)</sup>은 부부의 상대적 자원과 규범이 권력과 정적인 관계가 있고, 자원과 권력과의 관계에 문화적 규범이 상호 작용한다는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원이론(resource theory in cultural context)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Rodman<sup>6)</sup>의 이론에 근거하여 현대 산업사회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 경제적 자원과 관련된 부부가 가진 자원과 권력과의 관계를 탐색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부부 각자가 가진 자원의 양 및 상대적인 양을 비교하여 자원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 관계는 개인이 가진 역할에 대한 규범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부가 가진 자원에 따라 권력의 양에는 차이가 있는가?
2. 부부의 상대적 자원에 따라 권력의 양에는 차이가 있는가?
3. 부부가 가진 역할에 대한 규범에 따라 권력의 양에는 차이가 있는가?
4. 부부가 가진 역할에 대한 규범에 따라 자원

과 권력과의 관계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부부권력(conjugal power)

일반적으로 가족권력이란 가족체제의 특성으로 가족내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 의해 잠재적, 실제적으로 수정되는 것과 관계된다<sup>7)</sup>.

이와 같은 가족권력에는 부부권력, 부모권력, 형제권력, 친족권력 등이 포함되고 그 가족의 권력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권력에 포함된다<sup>8)</sup>. 그중 부부권력은 중심적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족권력의 여러 연구에서 배우자간의 권력을 비교한 상대적 권력을 정의하는 것이 강조되어 왔고 가족간의 권력 상호작용 과정보다는 의사결정, 즉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나는 권력 결과에 중점 두어 왔기 때문이다<sup>9)</sup>. 즉 부부권력이란 사회적 권력의 개념에서 볼 때는 부부간의 목표에 갈등이 존재할 때 서로의 행동에 누가 더 영향을 주는가의 상대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 비교에 기초한 상대적 권력으로서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남편과 부인의 상대적인 능력으로 정의한다.

### 2. 부부권력의 이론

부부간의 권력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교환이론(exchange theory)과 자원이론(resource theory)의 두 주류가 있다.

교환이론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오랫동안 교환과 호혜성의 관념을 다루어 왔다. 이 이론에서는 권력관계를 끊임 없는 인간행위의 교환과정으로 보고 불평등의 교환이 불평등한 권력관계 형성을 초래한다고 한다<sup>10)</sup>. Heer<sup>10)</sup>은 부부의사절정에 교환이론을 적용하여 개인의 자원이 부부관계에 더 많이 공헌하면 그는 대안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되고, 권력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자원이론은 부부권력을 설명하는데 가장 널리 적용된 것으로 “한 사람의 자원이 많을수록 그의 권력이 더 커진다”는 견해이다. Blood와 Wolfe<sup>11)</sup>는 부부간 의사결정 행위를 자원이론으로

설명하면서 개인적 속성과 소유를 강조하여 결혼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진 배우자가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Rodman<sup>6)</sup>은 비교문화 연구에서의 갈등적인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원이론”을 제시하면서 이 두 이론을 종합하였다. 즉 상대적 자원 외에 누가 권력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정의를 누가 실제로 권력을 갖는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자원이 권력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에 부수적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안하였다.

Rodman<sup>6)</sup>은 또한 부부권력에 대한 다양성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가설적으로 4가지 사회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 첫 유형은 부계사회(patriarchy)로 강한 부계규범을 가지며 지위계층에 따라서 남자의 권위에 차이가 없다.

두번째는 수정된 부계사회(modified patriarchy)로 상류에서는 평등한 규범에 의해 수정된 부계규범을 가지며, 부계권위가 사회계층과 역으로 상관되는 사회유형이다. 즉 하류에서는 부계규범이 강하여 자원과 권력이 관계되지 않고 남자가 합법적 권위를 가지나 평등적 규범을 채택한 상류에서는 자원이 권력에 더 영향력을 가진다.

세번째는 과도기적 평등주의사회(transitional equalitarianism)로 부부권력에 대한 규범이 평등적이고 융통적이며, 부계권위가 사회계층과 정적으로 상관된다. 이런 사회는 자원이 권력에 큰 영향력을 갖고 남편의 지위는 남편의 권력과 정적으로 상관된다.

네번째는 평등주의사회(equalitarianism)로 강한 평등적 규범을 가지며 남편과 부인의 권력공유가 가장 높고 지위계층에 따라 권위 형태에서 다양성이 없으며, 남편의 권력과 남편 지위 사이 어떤 상관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론에서 본 연구는 Rodman의 이론에 기초하여 수정된 부계사회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자원과 권력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선행 연구

가족구조 내에서의 권력의 다차원적인 구조를

Cromwell, Olson<sup>7)</sup>은 권력기반(power base), 권력과정(power process), 권력결과(power outcome)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대부분 부부권력에 관한 연구들은 권력의 구조를 연구하였고 권력의 기반이나 과정에 대한 연구는 희소하다.

중속 변인으로서 권력구조 또는 권력의 양적 측면을 다룬 부부권력의 연구들은 초기에는 부부가 가진 자원의 비교에 의해 자원이론적 접근을 하였으나 70년대에 들어서 교환이론, Rodman 이론 등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Blood와 Wolfe<sup>11)</sup>, Oppong<sup>12)</sup>, Michel<sup>13)</sup> 등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과 부인의 상대적 지위가 권력에 영향을 주어 자원이론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자원이론을 검증한 Komaravski<sup>14)</sup>는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를 지적하면서 낮은 사회계층에서 지위는 권력과 역의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교환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Safilios-Rothschild<sup>15)</sup>는 사회경제적 자원의 역할을 인정하여 특히 교육적 수준의 역할을 중요시 했으나 사랑이란 자원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자원이 높지 않은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canzoni<sup>16)</sup> 역시 교환맥락에서 자원의 역할에 대한 제제적 결합을 시도하여 가족간의 권력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원과 권력의 교환을 강조했다.

한편 Rodman<sup>17)</sup>은 미국, 유고, 그리스, 프랑스에서 행해진 4가지 연구 결과를 검토한 후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남편의 권력과 자원변인들 사이에 긍정적 관련이 있었으나 그리스와 유고에서는 부정적 관련이 있었다는 모순적 결과를 토대로 자원이론의 수정을 주장하였다. 그는 후속연구에서 초기 연구를 더욱 확장하여 이론을 정교화하였고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원이론을 주장하였다. 즉 남편과 부인의 권력은 그들의 상대적 자원과 부부권력 분포에 대한 문화적·하위 문화적 기대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받는다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Rodman의 가설적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하려는 시도에서 Kandel과 Lesser<sup>18)</sup>는 미국과 덴마크의 도시 가정을 비교한 결과 부인의 직업만이 그녀의 권력 증가에 공헌함을 밝혔다. 멕시코와 미국 부부들 비교한 연구<sup>19)</sup>에서는 미국 부부에게 교육·수입·직업의 자원변인이

권력에 직접 영향주었지만 멕시코 남편에게는 권력 감소와 관계되었는데 그것은 규범적 기대의 차이로 해석되었다. Szinovacz<sup>20)</sup>의 연구에에서도 부부의사 결정에 영향주는 것은 배우자의 상대적 사회지위라기 보다는 규범과 관계된 사회적 지위였다.

그러나 Rodman<sup>6)</sup>의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시도된 Burr<sup>21)</sup>의 연구에서는 규범적 자원은 부부권력에 주요 변인이었으나 상대적 자원은 매우 적게 설명되는 변인이었다. 또 이 연구 결과는 Rodman<sup>6)</sup>이 주장한 것처럼 부계보다는 평등적 규범에서 자원이 많을수록 권력을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지지하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의 연구를 보면 최재석<sup>22)</sup>과 한남제<sup>23)</sup>는 부부교육수준, 생계비 담당자, 부인직업, 계층 등에 따라 권력구조는 차이가 있다 하였는데 그 결과는 대체로 자원이론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은숙<sup>4)</sup>은 도시·농촌에서의 부부권위 구조의 차이를 사회경제적 수준의 차이로 분석하여 그것을 근대화의 일면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조혜정<sup>24)</sup>은 취업·비취업 주부의 권력관계를 교환이론의 모형으로 접근하여 설명한 바 있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볼 때 부부권력에 관한 여러 연구들은 권력을 자원의 영향으로 설명하지만 그 자원의 영향력에서는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아 자원의 가치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시사되고 있다. 또한 자원의 비교축면이 서로 달라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고 결혼을 하여 핵가족 형태에서 자녀\*를 갖고 있는 268쌍의 부부이다. 연구대상 부부의 평균 연령은 남편이 39.1세, 부인이 35.7세이며, 평균 자녀수는 2.3명이다.

\*본 연구의 대상을 자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 이유는 자녀가 생김으로서 부부간의 의사결정에서 변화를 보이고 그 이후 안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rrales(1975)<sup>25)</sup>의 연구에서도 자녀 유무에 따라 부부권력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표 1〉 부부의 교육정도

부부 통계치	남편(N=268)		부인(N=268)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교육정도				
무학	3	1.1	4	1.5
국졸	11	4.1	22	8.2
중졸	32	11.9	48	17.9
고졸	63	23.5	70	26.1
전문대졸	3	1.1	10	3.7
대졸	106	39.6	90	33.6
대학원졸	50	18.7	24	9.0

〈표 2〉 부부의 직업유형

부부 통계치	남편(N=268)		부인(N=268)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직업유형				
무직 및 가정주부	2	0.7	177	66.0
비숙련직	48	17.9	26	9.7
숙련직	44	16.4	5	1.9
판매·서비스직	54	20.1	13	4.9
사무직	46	17.2	30	11.2
관리직	45	16.8	2	0.7
전문직	29	10.8	15	5.6

〈표 3〉 부부의 월평균 수입

부부 통계치	남편(N=268)		부인(N=268)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월평균수입				
0	2	0.7	174	64.9
1~20만원	16	6.0	29	10.8
21~40만원	77	28.7	13	4.9
41~60만원	59	22.0	28	10.4
61~80만원	29	10.8	4	1.5
81~100만원	22	8.2	7	2.6
101만원 이상	63	23.5	13	4.9

연구 대상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교육정도, 직업 그리고 월평균 수입을 조사하였다. 교육 정도는 김영모<sup>24)</sup>의 기준을 직업은 한국표준 직업분류<sup>25)</sup>의 기준을, 월평균 수입은 염숙경<sup>26)</sup>의 기준을 참고로 하여 각

〈표 4〉 부부의 역할에 대한 규범  
(N=268)

규범	통계치	빈도	백분율
부계적		44	16.2
평등적		219	82.0
모계적		5	1.8

각 7단계로 분류하였다. 그 분포 상황에 따른 내용은 〈표 1〉, 〈표 2〉, 〈표 3〉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한편 본 연구대상의 규범은 Wolfe<sup>1)</sup>의 범주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를 위한 검사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 1) 권력 측정

권력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Burr<sup>2)</sup>의 부부의사 결정에 관한 질문지를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가족문제 전반에 관한 것 4문항, 구매 결정에 관한 것 4문항, 자녀 문제에 대한 것 4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는지를 질문하여 상대적 권력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반응은 5점 평정척도로 되어 3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인이 남편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아질수록 남편의 권력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 2) 역할에 대한 규범 측정

개인이 가진 역할에 대한 규범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urr<sup>2)</sup>의 질문지를 예비조사를 거쳐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권력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12문항에 대해 각 문항마다 부부 중 누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를 5점 평정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각 개인이 받은 점수는 Wolfe<sup>1)</sup>의 범주에 의거하여 총점이 12~19점 사이일 때 부계적 규범, 30~42점 사이는 평등적 규범, 30~42점 사이는 모계적 규범으로 간주되었다.

### 3) 자원의 측정

부부가 가진 자원으로서 교육·수입·직업의 사회경제적 자원으로 조사하였다. 그 측정을 위해서는 〈표 1〉, 〈표 2〉, 〈표 3〉을 각 7단계의 평정척도로 작성하였다.

부부의 상대적 자원은 부부 각자가 가진 자원을 배우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교육, 상대적인 직업 상대적인 수입, 상대적인 종자원을 측정하였다. 상대적 자원은 7단계 평정으로 측정되는 데 4점은 부부의 자원이 동등함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아질수록 남편의 상대적 자원이 많음을, 점수가 높아질수록 부인의 상대적 자원이 많음을 나타낸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질문지를 연구대상 부부 중 남편이나 부인 1명이 반응하도록 하여 남편이 응답한 질문지 136쌍, 부인이 응답한 질문지 132쌍의 총 268쌍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는 1985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검사지는 지역별\*\*로 유치원과 국민학교 학생들을 통해 가정으로 배부된 후 회수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우선 부부 각자의 자원에 따른 권력의 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7개 범주로 되어 있는 부부의 자원들을 분석의 용이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각각 4범주로 축소한 후 일원분량분석을 하였다.

부부의 상대적 자원에 따라 권력의 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7점으로 되어 있는 부부 상대적 자원의 점수 범위를 1~3점은 남편 우세, 4점은 부부 동등, 5~7점은 부인 우세의 3범주로 각각 분류한 후 일원분량분석을 하였다.

부부가 가진 역할에 대한 규범에 따라 권력의 양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일원분량 분석하였다.

부부가 가진 역할에 대한 규범에 따른 자원과 권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서울지역에서 사회계층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지역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수준이 다르다고 인정되는 6개 지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분석 결과를 제기된 문제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 1> 부부가 가진 자원에 따라 권력의 양에는 차이가 있는가?

부부의 교육·수입·직업에 따라 권력의 양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5>, <표 6>, <표 7>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5> 부부의 교육정도로 권 본력의 양

대 상	통계치	
	교육(N)	M
남편(N=268)	중졸이하 (46)	2.68 .55
	고 졸 (63)	2.74 .48
	대 졸(109)	2.78 .46
	대학원졸 (50)	2.85 .46
	F	1.04
부인(N=268)	중졸이하 (74)	2.65 .50
	고 졸 (70)	2.74 .53
	대 졸(100)	2.82 .41
	대학원졸 (24)	2.96 .50
	F	3.31*

\*p<.05

<표 6> 부부의 수입으로 본 권력의 양

대 상	통계치	
	수입(N)	M SD
남편(N=268)	0~ 20만원 (18)	2.65 .63
	21~ 60만원(136)	2.74 .46
	61~100만원 (51)	2.85 .40
	101만원 이상(63)	2.79 .53
	F	1.03
부인(N=268)	0~ 20만원(203)	2.69 .49
	21~ 60만원 (41)	3.00 .34
	61~100만원 (11)	2.93 .39
	101만원 이상(13)	2.91 .46
	F	4.43*

\*p<.05

<표 7> 부부의 직업 유형으로 본 권력의 양

대 상	통계치	
	직업(N)	M SD
남 편 (N=266)	비숙련직 (48)	2.69 .53
	숙련직 (44)	2.71 .50
	판매·서비스, 사무직 (100)	2.76 .43
	관리직, 전문직(74)	2.86 .50
	F	1.59
부 인 (N=268)	가정주부 (177)	2.67 .49
	비숙련직, 숙련직(31)	2.89 .51
	판매·서비스, (45)	2.96 .34
	사무직	2.96 .34
	관리직, 전문직(17)	3.02 .42
F	7.35**	

\*\*p<.01

<표 5>, <표 6>, <표 7>에서 볼 때 부인의 교육 수준과 월평균 수입에 따라 권력의 양은  $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부인의 직업유형에 따라서는  $p<.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부부의 자원에 따른 권력의 양에서의 차이는 부인의 자원에서만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남편의 자원은 남편의 권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부인의 자원은 부인의 권력 증가와 관계있다고 할 수 있다. 부부권력관계에 부인 자원의 중요성은 부인의 취업여부틀 중심으로 Hoffman<sup>27)</sup> 등의 연구에서 강조된 바 있고, 이러한 결과는 Fox<sup>28)</sup>의 결과와 특히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부 연구<sup>29)</sup>가 보고한 것과 같은 경향이 남편의 자원에 따라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남편의 자원에 따른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 본 연구는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는지의 상대적 권력을 측정하였으므로 방법상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대상의 경우 부계적 규범이 아니라 평등적 규범이 우세를 보여 남편이 부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부인의 자원이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문제 2> 부부의 상대적 자원에 따라 권력의 양에는 차이가 있는가?

〈표 8〉 부부의 상대적 자원으로 본 권력의 양

자원	상대적자원(N)	통계치	
		M <sup>1)</sup>	SD
교육 (N=268)	남편 우세 (120)	2.66	.49
	동 등 (129)	2.82	.47
	부인 우세 (19)	3.05	.39
	F	6.83**	
직업 (N=268)	남편 우세 (193)	2.70	.47
	동 등 (53)	2.95	.49
	부인 우세 (21)	2.93	.43
	F	6.64**	
수입 (N=268)	남편 우세 (215)	2.73	.47
	동 등 (39)	2.90	.51
	부인 우세 (14)	2.99	.50
	F	3.52*	

1) 평균 점수가 3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으면 남편의 권력이 높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높으면 부인의 권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p<.05

\*\*p<.01

부부의 상대적 자원에 따라 권력의 양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에서 볼 때 상대적인 교육, 상대적인 직업에 따라 권력의 양은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상대적인 수입에 따른 권력의 양은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부의 상대적 자원에 따라서는 자기 상대적 자원을 많이 가진 편이 더 높은 권력을 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대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Rodman<sup>9)</sup>과 Oppong<sup>13)</sup> 등 외국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 자원의 영향을 고려한 연구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우리나라 부부권력을 예언하는 데에도 상대적 자원을 고려하는 것에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상대적 자원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두 부부간의 지위에 대한 평가가 강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고, 부부간의 권력을 상대적 권력으로 측정할 것도 상대적 자원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다.

〈문제 3〉 부부가 가진 역할에 대한 규범에 따라 권력의 양에는 차이가 있는가?

〈표 9〉 부부의 역할에 대한 규범으로 본 권력의 양 (N=268)

규범	통계치	M <sup>1)</sup>	SD
평등적 (N=219)	2.85	.90	
모계적 (N=5)	3.43	.60	
F	38.5***		

1) 평균 점수가 3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으면 남편의 권력이 높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높으면 부인의 권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p<.001

부부가 가진 역할에 대한 규범에 따라 권력의 양에는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가 가진 역할에 대한 규범에 따라 권력의 양은 매우 유의있는 차이(0.1%)를 나타내었다. 즉 부부가 가진 역할에 대한 규범이 부계적일 때 남편의 권력이 우세하였고, 평등적·모계적 규범으로 갈수록 부인의 권력이 우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Rodman<sup>9)</sup>, Richmond<sup>20)</sup>, Burr<sup>21)</sup>, Szinovacz<sup>20)</sup> Cooney, Rogler, Hurrell과 Ortiz<sup>30)</sup>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외국의 연구들에서도 '규범'의 영향을 고려했을 경우 그 영향력이 강력히 제기된 바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원의 영향력보다는 '규범'이 가진 영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제 4〉 부부가 가진 역할에 대한 규범에 따라 자원과 권력과의 관계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부부가 가진 역할에 대한 규범에 따라 자원과 권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남편의 총자원, 부인의 총자원, 상대적 자원과 권력과의 관계를 규범의 차이에 따라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에 의하면 남편의 총자원은 평등적 규범에서만 권력의 양과 유의있는 상관(5%)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평등적 규범에서는 남편의 자원이 증가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므로 남편의 자원증가는 남편 권력의 감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부인의 총자원과 권력점수는 부계적 규범일 때는 1% 수준에서 평등적 규범일 때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5% 수준에서 자각 유의있는 상관을

〈표 10〉 부부의 자원과 권력과의 상관계수

자원	규범 부계적규범 (N=44)	평등적규범 (N=219)	전체 (N=268)
남편의 총자원	.08	.14*	.11
부인의 총자원	.38**	.14*	.19*
상대적 자원	.58**	.03	.17*

1) 상대적 자원 점수는 남편의 총자원과 부인의 총자원 점수를 비교하여 얻은 것임. 부부의 총자원이 동등할 때 4점, 남편의 총자원이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으며 부인의 총자원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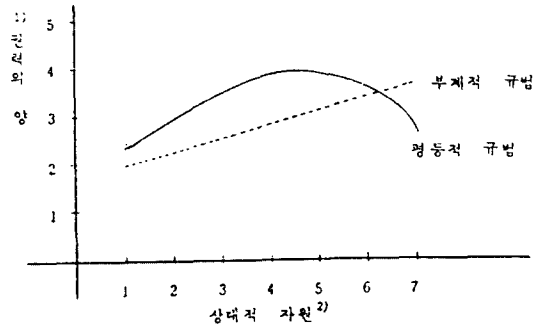
\*\* $p < .01$

보였다. 이것은 부인의 자원이 증가할수록 부인권력이 높아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 자원과 권력점수는 부계적 규범에서는 1% 수준에서 전체적으로는 5% 수준에서 유의있는 상관을 보였으나 평등적 규범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있는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부계적 규범에서는 특히 상대적 자원과 권력이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남편의 상대적 자원이 많을수록 남편의 권력이 높아졌고, 부인의 상대적 자원이 많을수록 부인의 권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할에 대한 규범유형에 따라 남편 총자원과 권력, 상대적 자원과 권력과의 관계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 자원과 권력은 부계적 규범에서는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평등적 규범에서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역할에 대한 규범유형에 따른 권력점수와 상대적 자원과의 관계를 분산도표로 도식화 해보면 〈도 1〉과 같다.

〈도 1〉에서 제시된 바처럼 부계적 규범에서는 상대적 자원과 권력은 직선적 상관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평등적 규범에서는 곡선적인 형태를 보였다. 즉 평등적 규범에서는 남편의 상대적 자원이 많을 경우 남편의 권력이 높았으나, 상대적 자원이 같을수록 평등성과 부인의 권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부인의 상대적 자원이 많은 경우 부인의 권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부계적 규범에서는 상대적 자원이 많을수록 권력의 양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Rodman<sup>6)</sup>의 이론에 따라 우리 나라를 수정



〈도 1〉 역할에 대한 규범에 따른 상대적 자원과 권력과의 관계

- 3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으면 남편의 권력이 높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높으면 부인의 권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 4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으면 남편의 상대적 자원이 많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높으면 부인의 상대적 자원이 많음을 의미한다.

된 부계사회로 가정한다면, 부계적 규범을 가진 경우는 상대적 자원과 권력이 상관을 보이지 않으나 평등적 규범을 가진 경우에는 상대적 자원이 권력에 더 영향력을 가지며,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그의 가설적 이론은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계적 규범에서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평등적 규범에서는 유의있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 관계는 곡선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오히려 미국에서 실시된 Burr<sup>21)</sup>의 결과와 더 일치된 면을 나타내고 있다. Burr<sup>21)</sup>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점에 대해서는 Burr<sup>21)</sup> 연구의 대상이 미국내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종교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도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격을 가진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연구 방법에서 볼 때 두 연구 모두 상대적 권력을 측정하는 것에서 기인했으리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Rodman<sup>6)</sup>의 가설적 사회유형의 분류에 따른 특징과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 것은 Rodman<sup>6)</sup>의 이론이 11개국의 비교연구만을 통해 얻은 결론이므로 그의 분류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 자원과 권력과의 관계는 기존 4유형 형태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으므로 비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론의 정교화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는 과도기에 있는 사회로 많은 규범상의 혼란이 있어 Rodman의 규범유형을 적용하였을 때 일치된 경향을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약해 보면 본 연구는 상대적 자원과 역할에 대한 규범이 권력에 영향을 주고, 자원과 권력과의 관계는 규범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Rodman의 이론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규범에 따라 상대적 자원과 권력과의 관계는 기대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평등적 규범일 때 상대적 자원이 더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주장은 지지되지 않았고, 부계적일 때가 평등적일 때 보다 더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부부가 가진 자원에 따라 남편의 자원에서는 권력의 양에 차이가 없으나, 부인의 자원에서는 권력의 양에 차이가 있다. 즉 남편의 자원은 권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부인의 자원은 권력에 크게 작용하여 부인의 권력 증가에 공헌한다.

2) 부부의 상대적 자원에 따라 권력의 양에는 차이가 있다. 즉 남편의 자원이 부인보다 우세할 때는 남편의 권력이 높고, 부인의 자원이 우세할수록 부인의 권력이 높다.

3) 부부가 가진 역할에 대한 규범에 따라 권력의 양에는 차이가 있다. 즉 역할에 대한 규범이 부계적일 때는 남편의 권력이 매우 높고, 평등적 규범일 때는 부인의 권력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4) 부부가 가진 역할에 대한 규범에 따라 자원과 권력과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난다. 부계적 규범에서는 상대적 자원이 많을수록 권력이 증가하나, 평등적 규범에서는 상대적 자원과 권력은 일관된 관계를 보이지 않고 폭선적 형태를 나타낸다.

자원과 부부권력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는 앞으로 사회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인지적·감정적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의 영향력을 고려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도시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자원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가족생활주기 등 가족내 변화 상황에 따라 자원과 권력과의 관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의 연구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며, 방법론에서 권력측정의 다양한 실험도구가 제작되어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1. Wolfe, D.M. Power and authority in the family. In D. Cartwright (Ed.), *Studies in social power*.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9.
2. 최재석, 한국 농촌 가족의 권력구조. *아세아 여성연구*, 8, 1969, 3-17.
3. 한남제, 한국 도시 가족의 권위관계. *한국사회학*, 6, 1971, 55-67.
4. 이은숙, 한국 가족의 부부간 권위관계에 대한 유형적 접근. *한국사회학*, 11, 1977, 95-107.
5. 임정희, 가족 권력구조와 자녀의 부모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2.
6. Rodman, H. Marital power and the theory of resources in cultural context.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 1972, 50-69.
7. Cromwell, R.L., & Olson, D.H. *Power in families*. N.Y.: John Wiley & Sons., 1975.
8. McDonald, G. Family power: The assessment of a decade of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1980, 841-854.
9. Scanzoni, J. Social processes and power in families. In W.R. Burr, R. Hill, F.I. Nye, & I.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Y.: The Free Press., 1979.
10. Heer, D.M. The measurement and bases of family power: An overview. *Marriage and Family living*, 25, 1963, 133-139.
11. Blood, R.O., & Wolfe, D.M. *Husbands and wives*. N.Y.: Free Press., 1960.

12. Michel, A. Comparative data concerning the interaction in French and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 1967, 337-344.
13. Oppong, C. Conjugal power and resources: An urban African examp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1970, 176-180.
14. Komaravsky, M. *Blue collar marriage*. N. Y.: Random House., 1967.
15. Safilios-Rothschild, C. A macro and micro-examination of family power and love: An exchange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976, 355-362.
16. Scanzoni, J. A social system analysis of dissolved and existing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1968, 452-461.
17. Rodman, H. Marital power in France, Greece, Yugoslavia and the United states: A cross national discu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9, 1967, 320-324.
18. Kandel, D.B., & Lesser, G.S. Marital decision-making in American and Danish urban families: A research not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1972, 134-138.
19. Crowell, R.E., Corrales, R., & Torsiello, P.M. Normative patterns of marital decision making power and influence in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A partial test of resource and ideology theor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 1973, 177-196.
20. Szinovacz, M.E. Another look at normative resource theory contributions from Austrian data-A research not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1978, 413-426.
21. Burr, W.R. An empirical test of Rodman's theory of resources in cultural contex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1977, 505-516.
22. 조혜정, 부부 권력관계의 변화를 통해 본 취업·비취업주부의 연구. 한국사회학, 15, 1981, 37-47.
23. Corrales, R. Power and satisfaction in early marriage. In R.E. Crowell, & D.H. Olson(Eds.), *Power in families*. N.Y.: John Wiley & Sons., 1975.
24. 김영모, 서울시의 사회계층과 계급구조에 관한 연구. 김재원 박사 회갑기념논문, 서울: 을유문화사, 1969.
2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한국표준 직업분류, 서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74.
26. 엄숙경, 가정의 사회화유형과 아동의 자아상 괴리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3.
27. Hoffman, L.W. Effects of the employment of mothers on parental power relations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takes. *Marriage and Family Living*, 22, 1960, 27-35.
28. Fox, G.L. Another look at the comparative resources model: Assessing the balance of power in Turkish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5, 1973, 718-730.
29. Richmond, M.L. Beyond resource theory: Another look at factors enabling women to affect family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976, 253-266.
30. Cooney, R., Rogler, L., Hurrell, R., & Ortiz, V. Decision making in intergenerational Puerto 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1983, 621-632.